

제32호

발행일 : 서기 2015년 10월 5일(월)
창간일 : 서기 2000년 8월 25일
구독신청 : (02) 836-5631
FAX : (02) 833-9401
H.P : 010-4711-8127

安東金氏 翼元公派宗會報

발행인 : 김 석 한
편집인 : 김 영 수
발행처 : 안동김씨익원공파종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57-33
인쇄인 : 김 성 회
사무실 전화번호 : (02) 836-5631
사무총장 휴대전화 : 010-4711-8127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친여러분



회장 김석한

그동안 가내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신지요
지난 반년은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세월이었나 봅니다.
우리 종회에서든 오랫동안 종회 발전을 위해서 애써 오시
던 만길 사무국장께서 지병으로 갑자기 타계하시어 우리
종인들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메르스 전염병이 전국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연이어 불어닥친 극심한 가뭄과 폭우
로 심신을 피로하게 하여 종인 여러분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시고 힘차게 정진하시는 종인님들의 저력과 용기
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608주기 익원공 부조묘 향사에 전국각지에서 많은 종인들이 참석하시
어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제례의식에 따라 향사를 종료하였고 또 많은 종
인들께서 아낌없이 후원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46차 정기총회에서도 많은 종인님들께서 참여하시어 화합과 단결, 공
감과 배려로 서로를 존중하며 일가간 친목을 돈독히 하는 자리와 우리 익원공
파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후원과 협찬으로 단합된 모습을 유감없이
표시하였으며 행사진행에서도 시종일관 화기에(和氣靄靄)한 분위기로 성
황리에 종료하였음에 또한 머리 숙여 경의를 드립니다.

제가 종회장에 임한지가 벌써 2년 6개월로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
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종회 발전과 종인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노
력하고자 금년에도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회관 일체개보수(리모델링) 공사
건물의 노후화로 비가 오면 창틀사이로 빗물이 들어와 벽이 곰팡이가 끼고,
지하노래방에는 빗물이 누수가 되어 수증기터로 물을 퍼내고 벽에 곰팡이
가 생겨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해주는 등 물난리를 치렀고, 내부에도 도색
이 퇴색되어 보기가 흉했던 것들을 예산 50,000,000원을 세워놓고 그것을
절감해서 32,000,000원으로 공사를 완공, 회관을 말끔하고 새롭게 단장하였
습니다.
- 목양리 낙포재 뒤 담보수 마루 공기침실 신도비 밑에 위담에 농업용수 펌
프모타설치 공사로 가뭄을 해결하였고
- 재실입구 폐 전사부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측량 후 전사를 철거하여
전으로 개간 정착하게 임대하였습니다.
- 대동보 편찬은 1,2차 교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인쇄소로 인계하여 인쇄
중에 있으며
- 종친화합을 위한 지역모임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나름대로 종회 발전과 종인들 화합을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여 "진인사대천명"하는 자세로 저의 임기를 마치고자
하오니 종인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후원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종인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어 행복한 날만을 보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익원공파종회 회장 김석한

先祖님의 行祀日

安東金氏 翼元公 派宗會 2015년

날 짜	장 소	연락처
음력 2월 14일	永慕堂 孝子 進士 金質(道巖書院) 儒林行祀 (익원공 7세손) 전북 고창 공음 칠암리 819-1(갑촌)	T.(063)564-7021
음력 2월 15일	邵令公 金宗漢, 佐郎公 金貴德 時享 (익원공 둘째손자) 전북 고창 공음 장곡	T.(063)562-7085
양력 6월 26일	白凡 金九 先生 追悼式 (익원공 21세손) 護軍公 金宗浚 익원공 큰손자에서 18세손 서울 효창공원 묘소, 백범 기념관	T.(02)719-1311
음력 7월 29일	翼元公 金士衡 不祧廟 祠堂 道巖書院內 享祀 전북 고창 공음 칠암리 819-1(갑촌)	T.(063)564-7021
음력 3월 10일	典籤公 金宗潤, 監察公 金琛 時享 (익원공 셋째손자) 충북 괴산군 청안 조천리	T.010-7533-2170
음력 10월 5일	貞簡公 金永熙, 領三司公 金礎, 按廉使公 金士廉 時享 충북 청원군 오창면 모정리 (익원공 할아버지, 아버지, 2째 형님)	T.(043)217-7517
음력 10월 6일	翼元公 金士衡 派祖 時享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T.(031)772-4821
음력 10월 7일	文英公 金恂 時享(익원공 증조 할아버지) 경기도 안양시 관양1동	T.(031)424-5292
음력 10월 9일	忠烈公 金方慶 中始祖 時享 (익원공 고조 할아버지)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동 능골	T.(054)855-2688
	同樞公 金宗淑 時享 (익원공 넷째 손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T.010-6282-1404
	文靖公 金碩 時享 (동추공 큰아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	T.010-289-7579
음력 10월 10일	孝昭公 金礎 時享 (동추공 둘째아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면 팔아리	T.010-6282-1404
	牧使公 金碩 時享 (동추공 셋째아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면 금산	T.010-2942-9052
	豐陽君 金礎 時享 (동추공 막내아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T.010-5055-0606

대동보 발간에 대하여

금번 대동보 발간은 대중회에서 주관하여 15개소파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제작하므로 취합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으나 대중회에서도 금번이 책해보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종인들이 참가하는 족보를 발간하기 위해서 늦
어지고 있는것으로 사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익원공파에서는 지난 6월 30일자로 2차교정까지 마치고 인쇄소에서 입
력중에 있으며 인터넷 족보는 금년말에 개통이 가능할것이라는 예상임을 아
울러 알려드립니다.

익원공파종회 회장 김석한

안동김씨익원공파 총회 제46차 정기총회

서기 2015년 3월23일(월요일) 11시부터 안동김씨익원공파총회 제46차 정기총회가 200여 종친과 대총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진구 소재 한강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봄바람이 산들산들부는 시원하게 펼쳐진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보며 한강호텔 회의장에 모이신 여러종인들께서는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그동안 궁금했던일들 환담을 나누느라 화기에애한 분위기에 웃음꽃이 피었다. 곧이어 회의가 시작되어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순으로 진행하면서 지난 17일 타계하신 前.사무총장 故.만길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려 장내를 숙연케하였고 이어 신임 사무총장에 익원공 21대손 영수님에게 임명장 수여가 있었고 내빈소개에 이어 회장 인사말을 통하여 우리 익원공파 종인들께서는 조상님에 대한 승조덕목 정신이 투철하시어 이렇게 대성황을 이루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 계속 일가간 화합하고 단합해서 종친들간에 친목을 돈독히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성회(문정공)감사의 감사보고 이어 2014년 회계 결산보고 2015년 예산안보고, 승인은 유인물에 의한 참석종인 만장일치로 원안을 승인하였다.

회의종료후 호텔 연회장에 마련된 음식을 나누면서 환담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어 각 소파별로 정기총회를 속개하여 바쁜 일정으로 하루를 보냈다.



2015년 3월 23일 제46차 정기총회 찬조금 내역

(단위:원)

번호	성명	주소	찬조금액
1	김 석 한	회장	2,000,000원
2	김 선 회	명예회장(극동콘크리트 대표이사)	200,000원
3	김 봉 회	대총회장	100,000원
4	김 중 목	판서공파회장 군사공파	100,000원
5	김 영 목	문영공회장, 제학공파(청주)	100,000원
6	김 선 회	청주종친회장, 안렴사공파	100,000원
7	김 성 회	지역난방공사사장 효소공	200,000원
8	김 상 근	대총회 사무총장	50,000원
9	좌랑공종회	좌랑공 고창종회	300,000원
10	좌랑공종회	좌랑공 룡등중중 회장	300,000원
11	김 삼 랑	좌랑공 종회 회장	100,000원
12	김 수 백	좌랑공 고문 서울 중랑구	100,000원
13	김 수 업	좌랑공 이사	50,000원
14	김 용 관	좌랑공 고창	50,000원
15	김 진 흥	좌랑공 고창	50,000원
16	김 신 회	좌랑공 고창	50,000원
17	김 재 식	전참공 회장 서울	100,000원
18	김 재 훈	전참공 고문 양주	100,000원
19	김 재 관	전참공 고문 서울	100,000원
20	김 재 원	전참공 부회장	50,000원
21	김 중 원	동추공종회 회장 대구	100,000원
22	김 근 식	문정공종회 회장 서울	100,000원
23	문정공 종회	참의공 종회 수원	100,000원
24	문정공 종회	이목종회 안산	100,000원
25	김 재 용	고문 서울	100,000원
26	김 재 영	부회장 수원	100,000원
27	김 재 진	고문 당진	100,000원
28	김 창 식	이사 용인	100,000원
29	김 대 현	이사 상주	100,000원
30	김 대 회	문정공 상주	100,000원
31	김 태 영	문정공 충주	50,000원

번호	성명	주소	찬조금액
32	김 용 식	문정공	50,000원
33	김 응 식	문정공	50,000원
34	김 재 광	효소공종회 서울	100,000원
35	김 용 대	고문 서울	100,000원
36	김 태 길	함열공회장 청주	100,000원
37	김 용 목	부회장 청주	100,000원
38	김 윤 목	부회장 청주	100,000원
39	김 재 남	부회장 남양	100,000원
40	김 재 원	부회장 부산	100,000원
41	김 흥 식	춘천	100,000원
42	논산종친회	효소공 논산종친회	100,000원
43	김 우 식	효소공 춘천	50,000원
44	김 춘 식	효소공 춘천	50,000원
45	김 재 봉	효소공 서울	50,000원
46	김 경 회	효소공 청주	50,000원
47	김 지 목	효소공 강원	50,000원
48	김 영 한	효소공 서울	50,000원
49	목사공 종회	목사공 대구종회	200,000원
50	김 실 경	목사공 종회회장 대구	100,000원
51	김 종 회	목사공 이사 태안	100,000원
52	김 용 세	목사공 이사 당진	100,000원
53	김 영 회	목사공	50,000원
54	김 기 창	목사공	50,000원
55	김 선 회	목사공 당진	50,000원
56	김 영 채	목사공 고문 양양	50,000원
57	김 재 한	목사공 이사 서울	50,000원
58	김 창 복	목사공 서울	50,000원
59	김 흥 회	목사공 서울	30,000원
60	김 흥 목	목사공	20,000원
61	김 두 회	경기 광주	50,000원
62	김 용 식		30,000원

제608주기 익원공부조묘 향사 봉행

서기 2015년 9월 11일(음7월29일) 금요일 오후2시 전북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갑촌 익원공부조묘 사당에서 김봉희 대종회 회장을 비롯 대종회임원들과 김석한 파총회 회장 파총회 임원의 전국에서 150여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분정 회의를 시작으로 大祭行事가 진행되었다.

분정회에서 추천된 헌관 및 제관들에게 망첩을 전달하면서 제례에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도록하고 일반참사자들도 선조님의 위업을 생각하는 승조정신으로 향사에 임하도록 집례자에 당부에따라 30여분간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분정회의에서 추천된 헌관 및 제관은 다음과 같다. 初獻官-宗會(참의공 부안) 亞獻官-興植(전서공종회 회장) 終獻官-在二(군사공파 강진) 陳設-京會(부령공파 고창) 大祝-聖會(효소공) 贊者-在永(문정공 부회장) 贊引-榮和(목사공) 奉香-會(전침공) 司樽-豐會(효소공) 封爵-在澤(전침공) 奠爵-在源(효소공) 時到-榮秀(전침공) 直日-善會(명예회장)



*미답사례

- 익원공파 총회 김석한 회장은 매년(3년간) 본인학교(보인고) 전용 리무진 45인승 버스1대를 제공하여 수도권 향사 참여종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사 종료후 귀가길에 참가자 전원에게 지역명물인 풍천장어와 토석주 복분자로 만찬회를 열어 종인간 화합과 단합을 고취시켜 부조묘 향사참석율을 제고시켰으며
- 목사공 용세 고문(당진)은 본인이 제조공장에서 매년 특주를 보내와 제주 및 음복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음복주로 특주2상자(40병)를 제공하여 향사 종료후 참여자 전원 음복을 하면서 웃음꽃이 피었다.
- 동추공종회 증원회장(대구)은 헌관음복례시 사용하는 소반 1점을 제공하여 향사진행과정 분위기를 더욱 고취시켰다.

제608주기 不桃廟 享祀 香燭代 芳名

2015. 9. 19(음 2.29)

번호	주소 및 성명	금 액	비 고
1	익원공파 총회 김석한회장	300,000원	
2	안동김씨대종회	100,000원	
3	효소공 부산 김재원	100,000원	
4	대종회 김봉희 회장	100,000원	
5	효소공 김재남 부회장	100,000원	
6	부여 김성희	50,000원	
7	명예회장 김선희	200,000원	
8	문정공 김관식	50,000원	
9	효소공 김윤목 부회장	100,000원	

번호	주소 및 성명	금 액	비 고
10	道山총회	100,000원	
11	전서공종회 회장 김흥식	100,000원	
12	대구익원공파 일동	100,000원	
13	수원 참의공종중 성희	200,000원	
14	전침공 인희	30,000원	
15	동추공종회회장 대구 김중원	100,000원	헌관 음복례 소반 1점
16	수원 김재영 부회장	100,000원	
17	문정공 총회	100,000원	
18	당진 지역총친회	100,000원	

만보당 문경공 휘.수동 불천위 한식향사 봉행

지난 2015년 4월 6일 안동김씨익원공파 동추공종회(회장 김중원)에서는 대구 시 동구 신유동 193번지 만보정 문경공 묘에서 만보당 문경공 휘,수동 선조님의 불천위 한식 향사를 봉행하였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제례행사에 많은 종인과 중부님들이 참석하시어 정성을 다해준비한 제물과 음식으로 성대히 봉행된 제례에 집례.증원(동추공회장), 초헌관에 봉희(대종회장), 아헌에 재광(효소공 회장), 종헌에 재훈(익원공 고문)이 헌작하였으며 축관은 채종근(유림총무)이 독축하였다.

선조님께서는 일찍이 문과에 급제후 삼도(전라·경상·경기)감사를 역임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오르셨으며 도덕과 문당이 뛰어나셔서 조선시

대 선비들의 꽃이라하는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을 지내신 우리 안동김씨문중을 빛내신 분으로 후손들에게 추앙을 받고 계신분으로 이러한 훌륭한 선조님들의 위패를 모신 만보정재실(晩保亭齋室), 문경공묘(文敬公廟)에서 불천위로 모셔 매년 한식년과 동추공 향사후 돌아온 첫주 일요일에 제향을 올리고있다.

이날 동추공종회 보고에 의하면 만보정 재실증수(삼문 포함)사업을 진행하여 마무리단계에 있는 증수공사에 격려와 헌성금을 보내주신 많은 종인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하였다.



賀金侍中詩序士衡

上洛金公之初拜侍中也。國老昌寧公叙其世美。爲詩以賀。名卿巨儒繼而和者若干首。及公受命東征也。又多廣韻以餞其行。聯爲大軸。浩亭河公跋其後。議論主於寬厚正大。且有勸勉規戒之意。其於公之德量。尤善於形容矣。或謂公曰。詩之有序尙矣。是不可無序於卷端。公乃命予。予惟有古動閩之家。世爲卿相若袁氏之四世五公。楊氏之四世大尉。前史美之。惟公先世。自忠烈公益大以顯。位侍中總國政。忠誠壯節。夷險不變。勳業卓卓。載在史冊。至今邦人猶望焉。文英。貞簡繼而承之。襲封上洛。貞簡又拜政丞。與吾宗雞林公同心協力。整理邦國。遭風餘烈。至今凜然。公之先大人亦既顯隆。位不滿德。以遺於公而公以寬厚之量。剛明之氣。扶翊興運。光啓王業。進拜侍中。繪夾輔。以建萬世無疆之基。蔚爲一代宗臣之首。其東征也。威德所加。不戰自屈。降附相繼。海寇永清。公可謂偃息談笑精神折衝者矣。嘗法春秋首止之義。扶立嫡長。以定宗社。入奏帝庭。特蒙嘉勞。既還。自以功高盛滿。辭職就第。優游怡養僅一歲矣。今我殿下即位。勵精圖治。復用公爲左政丞。命下。國人靡不欣慶。想望大平。而公益加兢業。小心謹慎。端冕雍容。不動聲色。而政簡事舉。中外又安。可謂上不負殿下之委任。下不負國家之倚望者矣。公之子婿若孫亦皆厚重守法。畧無挾勢矜矜之色。公之訓戒素行於家者可知矣。功顯於國。德積於家。公之世美。又當繩繩而未艾。勳名將相。與國匹休者。將至千百世而不窮矣。奚前史所美之足道哉。其本只在公兢業謹慎之一心爾。公益勉焉。予於公。受知久。不敢諛也。故既美之。而又勉之。(陽村(權近)先生文集) 제18권 >서시(序類)

시중 김사형을 축하하는 詩의 序

상락(上洛) 김공(金公)이 처음 시중을 배수할 때, 국로(國老 나라의 원로) 창녕(昌寧 본관) 성공(成公)이 그 가문의 이름다움을 서술하고 시를 지어 축하하였다. 명경거유(名卿巨儒)들이 이어 화답한 시 몇 수와 공이 어명을 받고 동정(東征)할 때 전별차 지은 많은 강언(廣韻 남의 시에 차 운하여 화답하는 것)을 연이어 큰 축(軸)을 만들고, 호정(浩亭) 하공(河公 하륜(河崐))이 그 끝에 발문(跋文)을 붙였다. 그 의문이 관후하고 정대한 것을 주로 하고 또한 권무하고 규계(規戒)하는 뜻이 있으니, 공의 덕량(德量)을 더욱 잘 형용한 것이다. 어떤 이가 공에게, "시에 서문이 있는 지 오랜지라, 이 책머리에 서문이 없을 수 없다." 하니, 공이 나에게 서문을 지으라 하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고로 혼별(動別)이 대대로 경상(卿相)이 되어 원씨(袁氏)의 4세에 5공(公)이 난 것과 양씨(楊氏)의 4세를 이어 태위(太尉)가 난 것은 전사(前史)에 정찬하였다. 공의 선대는 충렬공(忠烈公 충렬은 시호. 김방경(金方慶))으로부터 더욱 빛나 현달한 벼슬인 시중으로 국정(國政)을 도맡음에, 그의 충성과 장절(壯節)은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변함이 없었고 뛰어난 훈업(勳業)은 사책에 실려 있어, 나라 사람이 지금까지 우러러본다. 문영(文英 문영은 시호. 김순(金詢))·정간(貞簡 정간은 시호. 김영후(金永煦))이 계승하여 상락(上洛 봉호. 지금의 상주(尙州))에 속

봉(襄封) 되었고, 정간은 또한 정승을 배수하여 우리 일가 계림공(龜林公)과 뜻을 같이하고 협력하여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들이 남긴 풍토와 공령은 지금까지 우뚝하며, 공의 선대인(先大人) 역시 현달하였으나 지위가 덕망에 비해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공에게 물려 주었다. 공은 관후한 도량과 강명(剛明)한 기질로 흥왕하는 국운을 도와 빛나게 왕업을 열어 놓고, 시중에 배수되어 임금을 도와 만세의 무궁한 터전을 세우고 위대하게 일대 종신(宗臣)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가 동정(東征)할 적에는 위덕(威德)이 닿는 곳마다 싸우지 않고 스스로 굴복하며 투항하는 자가 잇달아 해구(海寇 왜적(倭賊))가 영원히 소탕되었으니, 공은 참으로 편안하게 웃고 즐기면서 정신으로 적을 막아 내는 사람이라 하였다. 일찍이 《춘추좌전(春秋左傳)》 수지(首止)의 의리를 본받아 적장(嫡長)을 세워 종사(宗社)를 정하고 제정(帝庭 明明)나라 조정에 들어가 주달(奏達)하여 특별히 그 공로를 치하받더니, 이미 돌아와서는 스스로 공이 높아 부귀가 잦다는 것으로 사직하고 집에 들어가 한가로이 지내는 지가 1년쯤 된다.

지금 우리 전하에서 정승을 다하여 정사를 도모하심에, 다시 공을 등용하여 좌정승을 삼는 명(命)이 내리니 국인(國人)이 모두 기뻐하며 경사로 여겨 태평을 기대하였다. 공은 더욱 조심하고 삼가며 온화한 마음으로 의관을 단정히 하고 성색(聲色)에 동하지 않으면서 간편함을 좇으며, 일이 잘 시행되어 중외(中外)가 안정되니, 위로는 전하의 위임을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국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공의 자손 역시 모두 진중하게 법도를 지켜 조그도 세도를 끼고 교만한 태도가 없으니, 공의 훈계가 본래부터 가정에 잘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로가 나라에 드러나고 덕이 가정에 쌓였으니, 공의 대대로 아름다운 경사가 또한 마땅히 길이 계승되어 쇠하지 않을 것이요, 나라와 더불어 낙을 같이 누릴 자가 장차 천백 세에 이르도록 다하지 않으리니, 어찌 전사(前史)에 훌륭한하다고 일컬어진 사람이 여기에 비할 수 있으랴. 그 근본은, 다만 조심하고 삼가는 공의 한 마음에 있으니 공은 더욱 힘쓰라. 나는 공의 알아줌을 받은 지 오랜지라 아첨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미 찬미하고 글을 지어 권면한다."

[주1] 동정(東征) : 1396년(태조 5) 10월에 왜구(倭寇)가 동래(東萊)·울진(蔚珍) 등지에 침입하므로, 12월에 김사형(金士衡) 등을 보내어, 일기(嶼岐)와 대마도(對馬島)를 치게 한 일을 가리킨다. 《太祖實錄 5年條》

[주2] 수지(首止)의 의미 : 장자를 세운다는 뜻. 춘추 시대 위(衛) 명 수지에 있었던 의로운 일을 가리킨다. 희공(僖公)·제후(齊侯)·송공(宋公) 등이 수지에 회합하여 맹세하고 왕태자(王太子)를 세우려 주(周) 나라 안정시키기를 모의하였다. 《春秋左傳 僖公 5年》

(편집자 의견)

익원공 김사형 할아버지의 시집(詩集)에 대한 호정선생 하륜(河崐)은 발문을 써 주셨고 양촌 권근(權近)선생은 서문을 써서 책의 품격을 갖추게 해 주셨다. 이 시집의 골간은 시중으로 등극하셨을 때 국로(國老) 성석린(成石璘)을 비롯한 명경거유(名卿巨儒)들이 화답한 시(詩)와 일반 일기도와 대마도 정벌에 나갈 때 전별차 지은 많은 차운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원본은 실전(失傳)된 상황이다. 당시의 명경거유 등 많은 분들의 문집에서 차운시가 상당수가 발견되고 있어 이에 복원 추진할 목적으로 이 글을 올린다.

특별기고

최고의 선행(善行)은 물과 같다



김재원 동양고전학자

금년은 35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댐의 수위가 낮아지고 식수가 부족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뭄으로 논과 밭이 갈라지고 파종한 씨앗이 싹이 나지 않아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간다. 금년은 이미 가뭄이 다른 때에 비할 심할 것을 주역으로 보는 2015년 을미(乙未)년 기고문에서 예상을 했다.

옛날에는 한 해에 처음으로 달력을 받으면 어른들이 달력을 보고 금년은 용이 몇 마리가 치수를하여 가물겠다. 혹 홍수가 지겠다고 하며, 홍수와 가뭄이 올 것을 미리 알아 그에 따른 대비를 하였다. 금년은 3마리의 용이 비를 내리는 일을 한다. 비를 내리는 용은 6마리 전후가 가장 이상적인데 3마리가 비를 내리게 하니 가뭄이 심할 것을 옛사람들은 책력만 보고 알아 가뭄에 대하여 대비하였으니 옛사람들의 지혜가 돋보인다. 이미 몇 년 전에 유엔에서는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를 하여 물을 아껴 쓸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역학에서의 물은 팔괘(八卦)기운에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감(坎 ☵)이 물이 된다. 물을 상징하는 부호인 감(坎)은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위험함으로 감(坎)은 위험한 때로 여름에는 물웅덩이에 익사하는 사람이 생긴다. 감(坎)을 주역의 패상으로 보면 감의 부호는(☵)는 양쪽 가에 2개의 음호(--)가 있고, 가운데에 한 개의(—) 양이 임하여 세 개의 부호로 이루어졌다. 물을 상징하는 글자인 水는 오른쪽과 왼쪽에 2개의 음이 있고 가운데에 양이 하나 있어서 주역 패상을 형상화한 글자임을 알 수 있다. (☵ 水 水)이 그림인 물 水자의 전자체로 양가에 음이 2개 있고 가운데에 양이 하나 있는 것이 더욱 명확하다. 물은 양쪽에 음이 두 개 임하여 개천이나 호수, 강의 물은 양쪽 가의 물은 얇고, 가운데는 양으로 물은 가운데로 갈수록 물이 깊고 물살이 세어서 위험하다. 물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면 물은 H2, O로 두 개의 수소와 한 개의 산소로 이루어져 주역에서 물이 2개의 음과 한개의 양으로 이루어진 것과 일치한다. 물은 산소가 물속에 녹아 있고 에너지를 상징하는 수소분자가 2개가 있어서 물은 인체의 약 70%, 인류는 약 80%, 그

밖에 물속의 미생물은 약 95%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생물의 생명현상도 여러가지 물질이 물에 녹은 수용액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학변화이므로 물은 생명의 시작으로 생물이나 식물 모두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물을 상징하는 감(坎)괘는 2개의 음이 임하고 한 개의 양이 가운데 임하여 한 개의 양남자가 중심이 되어 2개의 음 여자를 거느리는 형태로 양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된다. 감(坎)을 가족 구성으로 보면 중년 남성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는 사람이다. 물은 방위로는 북방이 되고 계절로는 겨울이 되어 물은 차고 시원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여름에 더위를 피하여 바다로 계곡으로 물을 찾아 피서를 간다.

물은 음 2개와 양 1개와, H2, O로 3개의 효와 3개의 물질로 이루어져 지구의 지각이 형성된 뒤로부터 물은 고체·액체·기체의 세 상태로 지구표면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해왔으며 지구 표면적의 4분의 3을 바다, 호수 하천이 차지하고 있다. 이 물은 모두 합하면 약 13억 3000만km³에 달한다. 지구 내부의 흙이나 바위 속에 스며들어 있거나 지하수의 상태로 약 820만km³가 존재한다.

노자가 말하길 최상의 선(善)은 물과 같아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나, 자기가 잘했다고 공을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물며 묵묵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므로 최고의 선한 사람은 물과 같은 사람이다. 물이 만물을 먹여 살리듯이 최고의 선을 갖춘 사람은 넓이 배풀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최고로 선한 사람은 또한 마음이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여 상황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잘 어울린다. 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행동이 겸손하며, 또한 심성이 물처럼 맑아서 마음이 고요하게 비어있다. 또 물은 속을 비추면 안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진실 되고 거짓이 없어서 선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본다. 우리 모두 물과 같이 묵묵하게 낮은 곳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물과 같은 최선(最善)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자기 직분에 충실하도록 합시다.